

# 서울시, 내년 예산 48兆 편성계획 吳 “건강·안전 지키고 미래 준비”

올해 45.7兆 대비 5% 늘어난 규모  
저출생 해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운세권 경험 위한 지하철역 탈바꿈  
여성·1인 사업장에 안심벨 등 보급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 모든 시민이 365일 운동하며 건강을 챙기는 활기찬 서울, 품격 있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서울,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서울, 범죄·사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는 서울, 권역별로 골고루 발전된 서울….’ 오세훈 시장이 제시한 2025년 서울의 모습이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총 48조 407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45조 7405억원 대비 2조 3002억원(5%) 증가한 규모다.

시는 2025년 예산을 ▲저출생 대응 ▲건강도시 서울 ▲활력있는 경제 ▲촘촘한 돌봄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 ▲글로벌 매력 도시 ▲균형발전 총 7개 핵심 과제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우선 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한다. 신혼부부·청년 대상 주거 지원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1조원 이상을 편성했다. 내년에는 신혼 부부 주택 4000호와 청년 주택 2504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고령·난임부부 의료비·시술비, 출산기구 지원을 통해 출생률 반등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2025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2025년 서울 시정의 최우선 과제는 시민의 건강이다. 누구나 운세권(운동+역세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을 운동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현재 여의나루역에서 운영 중인 ‘더너스테이션’에 이어 내년에 10개 역사에 환복실, 보관함 등 편의시설을 추가로 조성한다. 시민 참여 건강 축제·프로그램도 다양화한다.

서울경제 활력 높이기에도 힘을 쏟는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조기에 찾아내 신속하게 경영 자금을 지원하고,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에게 컨설팅부터 사후 관리까지 패키지로 지

원한다.

아울러 시는 촘촘한 공공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지원 센터를 설치해 민간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음식을 대량 조리해 도시락을 배달하는 ‘서울 밥상’ 사업 등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에 441억원을 투자해 세심한 돌봄을 실천한다는 복안이다.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을 위한 투자에도 집중한다. 여성·1인 사업장에 안심벨 ‘헬프미’ 10만개와 안심 경광등 1만개를 보급하고, 아파트 전기차 차재 대응을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한다.

서울의 매력 업그레이드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도시의 밤을 수놓는 드론 라이트 쇼, 올해 780만명이 다녀간 국제정원박람회 등 시내 곳곳에서 계절별로 특색 있는 축제를 개최한다.

마지막으로 시는 권역별 공간 혁신을 통해 서울의 균형 발전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서북권에는 월드컵공원 경관숲을 만들고, 동북권에는 어울림 체육센터와 사진미술관을 설치하며, 서남권에는 서서울미술관을 조성한다. 또 경사형 엘리베이터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이동수단 도입을 확대해 교통 소외 지역을 최소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5년 예산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조금도 후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의대 정원 증원’ 정시모집 변화

## 군 배치 변경·수능 지정과목 폐지 늘어

선발 인원 전년 대비 약 30%↑  
인하대 의대, 다→가군으로 변경  
학통·사탐 과목 선택해도 지원 가능

올해 의과대학 모집정원 증원으로 정시모집을 통해 선발하는 의대 인원이 전년보다 약 30% 늘었다. 특히 지역 인재전형 모집 규모가 확대된 가운데, 일부 대학은 의대 선발 군을 변경하고 선택과목에 따라 응시를 제한하던 규제를 폐지한 대학도 늘어나는 등 변화가 있다.

31일 진학사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시 모집 인원(일반전형 기준)이 지난해에 비해 331명 늘어났다. 작년 대비 30% 증가한 규모다. 수시에서 모집 정원을 모두 선발하지 못해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까지 합하면 실제 정시 선발 인원은 더 늘어난다. 지난해 의대 기준 정시 이월 인원은 약 40명이다. 특히 올해는 수시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가 증가해 이월 규모도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시에서도 지역인재전형 규모는 확대됐다. 올해 정시를 통해 의대는 일반 전형 192명, 지역인재전형 139명을 선



지난 13일 서울시내 의과대학.

/뉴스

발한다. 올해 정시에 지역인재전형을 신설하는 대학은 또한 강원대, 경북대, 계명대 등이다. 경북대와 계명대가 위치한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작년 17명에서 올해 50명으로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시 선발 군 배치를 변경한 대학도 있다. 올해는 인하대 의대가 ‘다’군에서 ‘가’군으로 선발 군을 변경했다. 조선대와 충남대는 ‘가’군에서 ‘나’군으로 선발 군을 바꾼다.

특히, 인하대의 군 배치 변경은 입시 결과에 큰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다. 지난해 ‘가’군 성균관대에 지원했던 수험생들이 동시에 많이 지원한 대학 ‘나’군의 경희대와 ‘다’군의 인하대였지만, 인하대가 ‘가’군으로 변경하며 수험생들

이 ‘가’군 내 선택권을 인하대가 아닌 다른 의대에 내줄 가능성이 크다고 진학사는 예상했다. 대신, ‘다’군에 남아 있는 순천향대 의대가 과거에 비해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변화는 수능 지정 과목을 폐지한 대학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과거 대부분 의대가 ‘학률과 통계’나 ‘사회 탐구’를 선택한 학생은 지원을 제한했지만, 올해는 이를 허용하는 대학들이 늘었다.

다만, 대부분 대학이 수학이나 과탐에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학통이나 사탐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합격은 여전히 어려울 전망이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소장은 “의대 정시는 매우 작은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나누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각 대학별 전형 변화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며 “특히, 성균관대나 인하대처럼 군 배치가 변경되거나 모집 인원이 늘어난 대학들은 충원율과 지원 패턴에 따라 입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

## 서울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관리역량 강화

교원 등 총 250여명 대상 연수 실시  
응급상황 대비해 학생 교육활동 보호

서울시교육청이 당뇨병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교원 등 총 250여명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당뇨병 학생 관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15세 미만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증가에 따라 당뇨병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정상적인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교직원이 소아청소년 당뇨병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활동 중 당뇨로 인한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생 건강증진 관련 역할을 수행하는 보건·영양교사 등 건강증진부 교직원과 담임교사 등 총 250여명이 연수 대상이다.

연수는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 당뇨병실 전문가와 함께 ▲당뇨병 관리의 이해 ▲건강증진부구성원의 역할 ▲저혈당과 고혈당 대처법 ▲영양 관리 ▲학생의 심리 사회적 관리 ▲인슐린과 글루카곤 주사법 의료 실습까지 특화교육을 개설해 운영한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연수를 통해 그간 소아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학교 교직원의 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체험학습, 운동회 등 특수한 상황에서 응급상황 우려로 인해 교육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당뇨병 학생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당뇨병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30일 연구중심 병원인 스위스 바젤대학 병원을 찾아 하인츠 뢰블리 교수로부터 관련 시설에 관련 설명을 들었다.

## 포항시-스위스, 바이오·스타트업 발전 협력

### 스위스 바젤시·바젤란트주 방문

교수와 면담을 갖고 질병 치료 연구 파트너로 지역의 포스텍, 한동대 등 우수한 지역 R&D 기관과의 상호 교류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스위스 열대 및 공중보건 연구소(TPH)를 방문해 위르그위팅거(Jurgen Utzinger) 연구소장으로부터 공중보건의 중요성과 AI를 활용한 고령화 시대 미래 공중보건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TPH는 포항의 우수한 바이오 R&D 인프라를 높이 평가하며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제안했다.

또한 바젤대 혁신센터와 이노베이션 파크 바젤을 방문해 크리스티안 슈나이더(Christian Schneider) 센터장을 면담하며 스위스의 스타트업 지원체계와 기술이전 및 투자자 매칭 등 엑셀러레이션 과정, 성공 사례를 청취하면서 포항시 창업생태계와의 접목 방안을 논의했다.

/포항(경북)=최지웅 기자 asdadax@

## ‘경기바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박차

### 해양레저관광상품 판매… 6억 투입

경기도는 경기바다해양레저관광 활성화사업을 통해 ‘일상에서 즐기는 경기바다’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올해 6억원을 투입해 17개 해양레저 관련 업체와 손잡고 경기바다 해양레저관광 상품을 111번가, 쿠팡 등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대표 상품으로는 ▲바다위에서 제부

모세길, 누에섬, 탄도항, 갯벌 등의 풍경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는 국내 최장 2.12km의 해상 케이블카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서해랑’ ▲갯벌체험 후 제부도의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제부리어촌체험마을 갯벌체험’ ▲시흥 시화호에서 요트와 보트, 배들 보드까지 직접 운행해 볼 수 있는 ‘페들 보드 체험’ ▲화성 전곡항 마리나에서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는 ‘카발리에 요트클럽’ 등이 있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